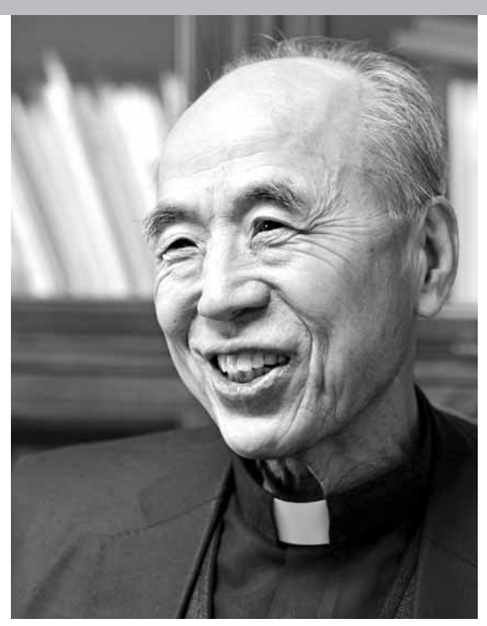
교황 방한 D-1…주교단과 동행 **최창무** 대주교

"한국사회 아픈 목소리 경청 사랑과 희망 일깨워 주실 것"



"교황의 모습에서 난국 타개의 빛 봤으면…한국 교회에 큰 격려와 힘"

지난 2010년 천주교 광주대교구장에서 물러난 최창무 대주교(78)는 나주 노안성당 '베타니아집'에 머물고 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가장 먼저 반기는 게 벽에 걸린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진이다. 14일 주교단과 함께 교황을 만나는 최 주교는 꽃동네 방문에도 동행한다. 12일 최 주교를 만나 교황의 한국 방문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었다.

-교황 방문이 한국 천주교계에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한국 천주교가 성장하면서 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진리를 위해 목숨을 바친 용기에 대한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진리는 살아있고,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자유가 순교자의 희생을 통해서 유지됐다는 점을 인정받은 거죠. 이번 방문은 한국 교회에 큰 격려와 힘이 될 겁니다.

-이번 방문은 교계 뿐 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어떤 의미를 던지고 있는듯 합니다.

▲불행히도 대형사고가 잇따르고 있어요. 민심은 천심이라고 해요. 행정, 입법, 사법부가 양심과 천리에 따라 지금 봉사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해요. 지도층이 진실하게 인간에 봉사하고 존엄성을 지켜주는 게 참 민주주의죠. 민중의 울부짖음, 눈물을 닦아주지 않을 때 특히 권력, 재물을 가진 이가 모른 척 하는 건 비인도적입니다. 교황은 이번 방문이 사랑과 희망을 나누기 위해서라고 했죠. 교황이 강조하는,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인류가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사랑, 절망을 넘어설 수 있는 희망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황의 생활이나 말씀 중 마음에 새기시는 게 있으신가요.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말씀 자체만 분리해서 보면 교황님도 새로운 게 없는데 새롭게 들리는 건 그의 삶이 묻어나기 때문입니다. 권위가 아닌, 삶으로서 보여주기에 당신 말이 권위있게 들리는 거죠. 공식 대담집 제목이 '나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예요. 신도들에게도 교회문을 열고 나가라고, 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모욕과 천대를 나눌 수 있도록 언제나 더불어 있는 모습을 몸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세월호 유가족 등 소외된 이들을 만나시는데요.

▲한국사회 아픔이 두드러진 문제들이죠. 밀양 송전탑, 강정마을 등. 신자가 아니라도 아픔이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회정의, 공공의 이익, 공동선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어요. 세상 안에 있는 교회이니까요.

-우리사회가 이번 방한으로 어떤 메시지를 받았으면 싶으신가요.

▲예수를 통해 알려진 참사랑과 참희망을 사람들 마음 안에서 일깨워 준다면 좋겠습니다. 교황의 모습에서 한국의 난국을 타개하는 빛을 본다면 그게 의미 있는 일이죠. 교황은 억울함을 풀어주는 해결사가 아니예요. 온몸을 투신해서 소외된 사람들을 만나 고통을 나누고 희망을 나누며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거죠. 결국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합니다. 권력을 가진 이들이 낮은 자리로 가서 경청하는 것,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요식행위가 아니라, 진심으로 만나줘야죠. 저 멀리서 오는 교황도 그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방한 중 방탄차를 타지 않는 등의 행보가 화제가 됐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신다는 것을 거기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경호팀은 어렵겠죠. 실제 요한 바오로 2세가 총을 맞은 적도 있잖아요. 안전보다는 좀 더 민중에게 가까이 가고 싶다는 의사 표현이시죠. 교황은 교회를 야전병원에 비유해요. 우리가 생활 전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야전병원이 모든 사람을 돌보지는 못하지만 그 사람들을 치료하다 보면 손에 피도 묻고, 옷도 깨끗할 수 없어요.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을 강조하시는 거죠.

최 주교는 "우리는 분단이라는 장애를 치워야 한다"며 "교황께서 평화와 화해 미사를 통해 고착화된 분단을 깨트릴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광주 방문 기념비 제막 1984년 5월4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광주 방문을 기념하는 기념비(높이 1.65m, 너비 1.4m) 제막식이 12일 오후 광주-KIA 챔피언스필드 앞에서 열린 가운데 김희중 천주교 광주대교구장이 기념비에 축성하고 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당시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미사를 열고 5·18광주민주화운동 등 시련을 겪은 광주 시민들을 위로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한국 첫 우주인 이소연씨 항우연 퇴사

광주출신…향후 진로 고민

한국 최초이자 유일한 우주인인 이소연 씨가 결국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을 퇴사했다.

항우연은 12일 "휴직 중인 선임연구원 이씨가 우편을 통해 퇴직원을 제출해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날까지 휴직을 신청한 상태였다. 퇴직 이유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사정이라고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12년 8월 휴직계를 내고 미국으로 가 교포 의사와 결혼하고 나서 현재 미국에서 살고 있다.

1997년 광주과학고를 졸업한 뒤 KAIST 기계공학과에 입학한 이씨는 3만6000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2008년 4월 8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다녀와 한국 최초의 우주인이 됐다.

하지만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주립대(UC 버클리)에서 경영학석사(MBA) 과정으로 전공을 바꾼 데 이어 퇴사를 결정하면서 정부가 260여억원을 들여 추진한 한국 우주인 배출 사업이 일회성에 그쳤다는 논란을 빚었다.

항우연은 후속연구로 우주인 활동 및 관리, 한국형 유인우주프로그램 개발, 마이크로중력 활용 유인우주기반기술 연구 등을 내세웠지만 5년 동안 후속사업에 들어간 예산은 40억원 남짓에 불과했다.

이 사업의 유일한 결과물인 이소연 박사의 우주 경험은 대중 강연이나 교육 프로그램으로만 활용됐을 뿐 체계적인 우주인 육성 계획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이씨에게 '먹튀'라는 비난을 보내고 있지만, 항우연 의무 근무 기간이 2008년 끝났고 KAIST 겸임교수직 임기도 지난해 8월로 만료된 만큼 이씨 개인에 대한 비난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 이씨는 의무 근무 기간이 만료된 뒤 별다른 후속 연구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진로에 대해 고민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수 항우연 홍보실장은 "처음 우주인 배출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후속 우주인 양성에 대한 계획은 없었다"며 "당시 분위기는 우주 강국에 진입한 우리나라가 네팔이나 아프가니스탄, 말레이시아 등에도 있는 우주인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고, 1호 우주인을 양산하는 것이 우선 과제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스포츠로 세계 평화를"

광주U대회 '에픽스 포럼' 19~30일 호남대서 개최

2015광주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이하 U대회 조직위)는 12일 "유엔스포츠개발평화사무국(UNOSDP)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유스리더십프로그램(YLP) 및 에픽스(EPICS)포럼을 19일부터 30일까지 호남대학교 광산캠퍼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YLP는 UNOSDP가 분쟁지역 또는 개발도상국 청소년을 스포츠 개발과 평화 전문가로 양성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광주에서 지난해 개최된 데 이어 올해 두번째다. 지난해에는 북한 청소년 3명과 인솔자 1명이 참석했으나, 올해는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행사에는 아시아, 오세아니아 대륙 저개발 분쟁국에서 선발된 33명과 국내 청소년 500여명이 참가한다.

참가청소년은 태권도, 배구, 축구, 수영 등 스포츠 활동과 결합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을 통해 성평등, 평화, 장애극복 등을 체험하게 된다.

에픽스포럼은 '스포츠와 문화예술의 만남'을 주제로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씨, 김원수 유엔사무총장 특별보좌관, 윌프레이드 렘케 유엔스포츠 특별보좌관, 소치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박승희씨, 최다 동계올림픽 출전 기록을 가진 이규혁씨, 세계장애인수영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 김세진씨, 박화영 인코코 대표 등 스포츠와 문화예술 분야에 활동 중인 8명이 강사로 나선다.

에픽스포럼은 U대회 주제(Environment, Peace, IT innovation, Culture, Sport Development)의 영문이니셜을 딴 행사 명칭이기도 하다.

김윤석 U대회 조직위 사무총장은 "2회째인 YLP와 에픽스포럼은 스포츠를 통해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고, 세계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고자 광주 U대회 조직위와 UN스포츠개발평화사무국이 마련한 특별한 프로젝트"라면서 "특히 참가자 스스로가 스포츠는 어떻게 문화와 예술과 융합돼 사회를 발전시키고 풍요롭게 하는지를 직접 묻고 답하며 그 의미를 찾아보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